

# THAAD 백해무익 사드 막아야 합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평화·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경제도 큰 타격!



MK 뉴스

증권가 `사드 공포`... 中 경제보복 때 관련주 위험 보고서 잇따라

기사입력 2016.02.21 17:19:17 | 최종수정 2016.02.21 20:39:04

한겨레

2015년 06월 01일 월요일 005면 종합

“한반도 사드, ...중국 공격 받을수도”

포스텍 MIT공대 교수 인터뷰

##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일 미사일방어망(MD)의 전초기지가 되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망에 가담하게 되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결성되어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양 진영으로 갈려 대결이 격화됩니다.
-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우리의 평화와 안보가 위태로워지며 통일도 늦어집니다.
-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돼 대중국 수출과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 한국은 부지뿐 아니라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 지원 등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운영 유지비도 부담해야 할 판입니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연간 1조원 이상)도 대폭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강력한 전자파로 사드 배치 인근 주민 건강과 생활이 위협받고,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 한국군도 사드를 도입하게 되어 수 조원의 예산(3조원 가량)이 낭비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린 사드 한국 배치가 초임기에 들어갔습니다.  
평택, 군산, 왜관(대구) 등이 배치 후보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나서서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합니다!

# 사드가 남한 방어용? 아닙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

“사드는 중국 노린 미국의 비수(項莊舞劍意在沛公)”  
(왕이 중국 외교부장, 2016. 2)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한 것!

-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0~5,000km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사드 레이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슈퍼)그린파인 레이더(탐지거리 600~900km)를 2기 보유하고 있고, 이지스 레이더(탐지거리 1,000km)도 3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사드가 대북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고 그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미국의 잔꾀입니다.



“한국에선 미사일방어가 효용성 낮다” (미 의회 보고서, 2015. 4)

**사드로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반도는 남북 길이가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순식간에 남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막는 것은 애초부터 거의 불가능합니다.
-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주일미군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공격한다고 해도 비행시간이 길어 단거리 미사일에 비해 요격당할 가능성이 큼니다.

“국방부, 2013년에 사드 부적합 판정” (진성준 의원실 2015. 5. 21)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평화와 안보, 국익을 희생해야 합니까?

정복·지자체 지원 0% 평통사 회원이 되어 주세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02-711-7292 [www.peaceone.org](http://www.peaceone.org)